

쓰고 남은 농약 보관! 어떻게 해야 하나?

라벨(포장지) 훼손에 주의하고 절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아야

농약전용 보관상자·현 캐비닛 이용, 자물쇠 장치해 별도 보관
라벨(포장지) 훼손시 반드시 상표·품목명 적어 두어야

- 홍보부 -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약은 농작물에 해를 주는 병해충을 방제함으로써 생산량을 높이고 잡초방제에 필요한 노력을 줄여 생산비를 절감하는 등 안정적인 농업생산을 이끌어 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 농자재다. 그러나 최근 본격적인 영농기에 들어 이 같은 농약의 고유목적과는 무관하게 쓰다 남은 농약의 부적절한 처리나 잘못된 보관관리에 기인한 뜻하지 않은 사고가 발생하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얼마전에는 노인들이 거실이나 부엌에 잘못 보관중인 수화제나 분제 등 가루농약을 밀가루로 잘못 알고 빈대떡이나 부침개 등을 부쳐먹다 중독사고를 일으키는 사고가 있었다. 그런데 며칠 전에는 쓰다 남은 농약을 콜라나 사이다를 먹고난 펫병에 잘못 보관해 오다 이를 물로 오인한 노인들이 커피를 끓여 마시다 귀중한 인명피해를 입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농약의 안전한 보관관리가 더욱 요구된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농약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손을 댈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농약전용 보관상자나 현 캐비닛 등을 이용, 자물쇠장치를 하여 어린이나 노인, 술취한 사람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특히 쓰다 남은 농약은 절대 박카스병이나 콜라, 사이다병과 같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아야 하며 만약 라벨(포장지)이 훼손되었다면 최소한 상표명이나 품목명이라도 반드시 적어 보관해야 한다. 물론 농약은 의약품 또는 식료품, 사료의 보관장소와 철저히 구분하여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쓰다 남은 농약 보관

일반 농가에서는 특히 다음 사항들에 유의해야 하며 철저한 농약의 보관관리로 더 이상 부주의로 인한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하겠다.

첫째, 농약은 전용보관상자를 만들거나 현 캐비닛 등을 이용, 자물쇠 장치를 하여 보관함으로써 어린이나 글을 모르는 노약자, 술에 취한 사람 등이 함부로 취급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

둘째, 농약 보관상자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 중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의약품 또는 식료품, 사료의 보관장소와 구분하여 자물쇠를 채우고 보관해야 한다.

셋째, 농약은 본래의 농약용기에 넣어 라벨(포장지)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만약 라벨이 훼손되었다면 용도별 구분과 함께 최소한 상표명 또는 품목명이라도 적어 보관토록 한다.

넷째, 특히 비선택성 제초제 등 제초제와 고독성농약은 다른 농약과 구분하여 보관함으로써 오용의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다섯째, 보관중인 농약은 만의 하나라도 용기의 부식이나 약액의 누출, 마개의 풀림 등이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 한다.

여섯째, 쓰다 남은 농약은 잘못 사용하거나 음료수로 잘못 알고 마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절대 다른 용기에 옮겨 담지 말아야 한다. 특히 농약을 본래의 용기가 아닌 박카스병 또는 코라, 사이다병 등과 같은 다른 병에 넣어 보관하면 어린이나 술취한 사람, 글을 모르는 노약자 등 사리를 분명히 판단할 수 없는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식음료로 잘못 알고 마실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또한 농약을 마루밑이나 헛간 등에 그냥 보관하면 어린이들이 술래잡기를 할 때 잘못 마시는 경우가 있으므로 절대 이런 곳에 보관해서는 안되겠다.

희석약액

농약은 희석전에 살포면적 및 살포농도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양을 조제해야 한다. 이때는 남지 않도록 조제하고 조제한 약액은 포장에서 처분한다. 또 기상정보 등을 참고하여 살포당일 날씨를 확인하고 비나 강풍 등 약조건이 예상될 때는 살포액을 조제하지 않는다. 살포 후 남은 희석액은 약액이 하천, 용수 등에 스며들지 않도록 주의한다. **농약정보**

